

# 방각소설 「장풍운전」 내적 변화의 독자 성향\*

김 병 권\*\*

## 차례

I. 문제제기	III. 서울지역과 호남지역의 독자 성향
II. 경관과 완판의 내적 변화	1. 구성에 대한 심미적 성향
1. 작품 구성의 변화	2. 의미에 대한 이념적 성향
2. 작품 의미의 변화	IV. 결 론

## I. 문제제기

경판본이나 안성본은 언어조사가 비교적 품이 높고 짜임새도 보다 정리되어 합리성을 띠고 있는데 비해 완판본은 구어적이며 열거와 반복이 많고 짜임새가 어성겨서 내용이 가다듬어져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결과는 경기지방의 독자층의 지적 수준이 완주 독자층보다는 높았다는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판 출판자는 독자의 수준을 의식하여 간행 당시 되도록 그들 수준에 맞도록 손질을 하였기 때문이었고 완판의 경우 출판자나 독자들은 전후관계를 통하여 통일된 구조미의 감상보다는 즉흥적 이요 현시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일 것이다.<sup>1)</sup>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성회 재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류탁일, 「완판방각소설 간행의 배경」, 『논문집 제29집-인문사회편』(부산대학교, 1980), 『한국문헌학연구』(아세아문화사, 1989)에 재수록. 이 글에서는 『한국문헌학연구』, 127~128쪽에서 인용함.

방각소설은 소설 독자의 증가에 따라서 방각본 간행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소설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경기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간행하였다. 방각소설은 동일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간행지역에 따라서 내용의 변화를 보인다. 그러면 경기지역에서 간행한 경판 또는 안성판 소설과 호남지역에서 간행한 완판 소설의 내용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독자의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위의 인용 내용은 방각소설의 문헌 내적 변화의 원인을 독자의 수준으로 설명하는 관점인데, 이 관점은 간행 지역이 다른 동일한 작품에 대한 독자의 성향을 밝히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 작품의 경판과 완판의 작품 내적 변화에 근거하여 간행 지역의 독자 성향을 밝히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판과 완판으로 간행된 소설 가운데 하나인 「장풍운전」을 선택하여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된 내용에 근거하여 서울지역 독자와 호남지역 독자의 작품 감상 성향을 밝혀보기로 한다.

방각소설의 내적 변화로써 서울지역과 호남지역의 독자 성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간행된 작품을 선택하고, 다음으로는 간행 시기가 비슷한 이본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장풍운전」이다.

「장풍운전」은 경판 또는 완판으로 간행된 작품이다. 경판은 31장본, 29장본, 27장본, 그리고 19장본 등 네 종이 전하고 있다<sup>2)</sup>. 이 가운데 간행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본은 「戊午紅樹洞新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29장본이며, 그 연대는 185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sup>. 그리고 완판은 다가서포에서 간행한 36장본과 39장본, 그리고 서계서포에서 간행한 39장본 등 세 종이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가서포 간행 36장본은 1857년경에 간행된 후 1903년경에 보각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4)</sup>. 결국 경판 가운데 29장본과 완판 가운데 다가서포 간행 36장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이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의

2)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53쪽.

3) 류탁일, 「경판방각본 연구 방향」, 앞의 책, 167쪽.  
이창현, 위의 논문, 153~161쪽.

4)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학문사, 1981), 204~205쪽.

대상으로는 경판 가운데 홍수동 간행 29장본과 완판 가운데 다가서포 간행 36장본을 선택한다.

## II. 경판과 완판의 내적 변화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의 내용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두 이본 사이에 변화된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준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소설은 서술자가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의사소통구조로 구성되며, 전달되는 이야기의 내용은 인물에 대한 묘사, 인물의 행동, 그리고 인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문헌의 변화는 내용의 생략 또는 번개, 그리고 語辭의 전환 등으로 구분된다<sup>5)</sup>. 내용의 생략 또는 번개, 그리고 語辭의 전환 등은 작품에서 인물의 성격, 대화 또는 행위 등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 대화, 그리고 행위 등의 변화는 작품의 구성 또는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의 내적 변화를 작품의 구성과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작품 구성의 변화

#### 1) 사건 서술의 속도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완판36장본에 비하여 경판29장본에서는 내용이 생략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략은 인물의 대화 또는 행위 등의 서술에 나타난다. 두 이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은 간행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품의 분량을 줄이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sup>6)</sup> 작품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스토리의 시간에 비하여 텍스트의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사건을 서술하는 속도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sup>7)</sup>.

5)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227~232쪽.

6) 이창현, 앞의 논문, 153~161쪽.

7) 가속은 텍스트-시간과 스토리-시간의 관계에서 “스토리에 긴 시간을 차지하고



로 볼 수 있다.

[자료 2]

경판29장본 : 한님이 탐천의 주달하여 삼삭 수유를 어더 상셔를 피시고 셔  
쥬로 감식(13전)

완판36장본 : 잇튼날 할님이 킬니에 드러ᄫ 스은속비하고 주왓, “소신이  
본더 허반 천인으로 일직 부모을 이별하고 전상셔 왕공렬의 집의 여러  
세월을 지니온 은혜 망국한지라. 이제 셔주의 가 의홀흐옵던 겸을 감고  
져 호오니다.” 상이 허허시고 견교 왓, “경은 짐의 수족이라. 오리 유치  
못흐리니 속식 발무를 주논니 직시 도라와 짐을 도오라.” 보화을 상급흐  
시니 한입이 천은을 축스하고 철의 집의 나와 서로 이별하고 상셔을 모  
시고 셔주로 나려올 시,(14전)

위의 자료는 장풍운이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에 왕공렬의 집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다. 경판29장본에서는 장풍운이 천자에게 삼삭 수유를 청하여 허락을 받는 사건만을 서술하고 있을 뿐 장풍운이 천자에게 주달한 대화의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완판36장본에서는 장풍운이 삼삭 수유를 천자에게 요청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천자가 장풍운에게 자신을 도울 것을 부탁하고 보화를 주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경판29장본의 내용은 장풍운이 삼삭 수유를 얻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며, 완판36장본의 내용은 장풍운과 황제의 대화 장면을 극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물의 행위가 생략된 예를 보기로 한다.

[자료 3]

경판29장본 : 상이 디회호스 상장군 결월과 디원슈 인슈를 주시고 정병 빅  
만과 장슈 천여 원을 주시며 한님이 스은하고 죽일 교장의 나아가 군스  
로 년습후 후 익일의 하직하고 힉군호니라.(14전)

완판36장본 : 상이 디찬호스 디스마 디장군을 봉호시키고 정병 팔십만을 주시  
며 친필노 그에 쓰시되 ‘육당 할님 학스 겸 디스마 디원슈 상장군’이라  
호여더라. 하직하고 나와 제장을 분발 ᄫ 힉호시 상이 원슈의 손을 잡고  
ᄫ로스디, “각도 각관의 티만한 지 잇거든 처츨호라.” 호시니 제장군졸이  
아니 두려홀 지 업더라. 용봉 그치와 빅모 황월의 슈근 감주와 인검을  
주시니 원슈 천은을 축스하고 발힉호시 삼층 눈거의 노피 안즌 좌슈의  
뽀미션을 쉼고 우슈의 홀기를 드러 제장 군졸을 호령하며 힉군호니 그  
위의 거동이 셔리갓더라.(15전~15후)

위의 자료는 장풍운이 대원수로서 서번과 서달의 모반과 침략을 정벌하기

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하는 사건을 서술한 내용이다.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을 대비해 보면 많은 내용이 변화되어 있다. 특히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완판36장본에는 경판29장본에 비하여 긴 내용이 부연되어 있다. 완판36장본에서 부연된 내용은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장풍운에게 부여하는 천자의 발언과 전송, 대원수로 출전하는 장풍운의 모습, 군사를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장풍운의 모습과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 등이다. 그러나 경판29장본에서는 천자의 발언과 전송 또는 서술자의 논평 등을 생략하고, 장풍운의 출전 모습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경판29장본의 내용은 장풍운의 출전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며, 완판36장본의 내용은 장풍운의 출전과 황제의 전송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경판29장본은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고 있으며, 완판36장본은 장면을 중심으로 극적으로 제시하거나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제의 미’와 ‘유형의 미’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sup>10)</sup>, 사건을 서술하는 속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경판29장본에서 사건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은 스토리 시간에 비하여 텍스트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사건 서술 속도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완판36장본에서 사건의 장면을 극적으로 제시하거나 묘사한 것은 스토리 시간에 비하여 텍스트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사건 서술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 2) 작품 구성의 통일성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많은 내용이 변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의 변개는 내용의 지나친 생략과 함께 작품 구성의 통일성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작품 구성의 통일성과 관계되는 인물의 대화 또는 행위의 변개와 생략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인물의 대화 내용이 변개된 예를 보기로 한다.

[자료 4]

경판29장본 : 도시 왕 “이 으히 십세 전의 부모를 니별호고 타향의 표박호

10) 류탁일, 「완판방각소설 간행의 배경」, 앞의 책, 128쪽.

다가 이십의 등과하여 부모를 다시 맞고 부귀와 공명이 턱하의 웃음이 될 거시오 삼쳐 이첩의 늑주 오녀를 두리라.”하니(2전)

완판36장본: 도사 왈, “수년 전의 두우성이 금능의 찌러지미 괴특한 영준이 나도다 하였더니 상공덕의 나도소이다. 아히 상을 보니 일홈이 스희에 진동하야 만중 늑을 누를 거시로더 다만 십세 전의 부모을 일코 추풍낙엽갓치 정쳐업시 단이다.” 이십의 용문의 온나 영화부귀 일국의 웃음 되어 삼쳐 일첩의 늑주 오녀을 두어 가장 길흐도소이다.”<2전>

장풍운은 자라는 과정에서 스스로 시서를 익히고 궁마를 연습하여 속성함을 보인다. 장효는 장풍운의 단명을 격정하여 장진인이라는 도사에게 찾아가서 아들의 相을 보아달라고 부탁한다. 위의 자료는 장진인이 장풍운의 상을 보고 그의 장래를 설명한 내용이다.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을 대비해 보면 어사가 바뀌어 있거나 완판36장본에 많은 내용이 부연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내용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밑줄 친 부분에서 보는 처첩의 수이다. 경판29장본에서는 장풍운이 삼쳐 이첩을 두는 것으로 설명하며, 완판36장본에서는 삼쳐 일첩을 두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삼쳐 이첩과 삼쳐 일첩 가운데 어느 쪽이 정확한 것일까?

「장풍운전」에서 장풍운이 이부시랑 이운경의 딸 이경패, 이부상서 왕공렬의 무남독녀 왕부용, 천자의 질녀인 유경화, 황성의 부상대고 원철의 딸인 원황화, 그리고 윤옥<sup>11)</sup> 등 다섯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서 모두 동일하다. 완판36장본에서는 장풍운이 황화를 맞 아들일 때에 “철리 턱일호여 예을 이룰시”(14전)와 같이 예를 올리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사처 일첩이 되며 유경화가 이경패를 포함한 죄로 처형된 사실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는 삼쳐 일첩이 된다. 그러나 다음의 예를 보면 삼쳐 일첩이 잘못된 서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①왕상서 스희되고 원철의 딸로 첩습고(완판36장본 19후)

②부모와 슝 부인게 흐직하니(완판36장본 26후)

11) 윤옥이 경판본에서는 광대 무리에 있다가 왕공렬을 따라가는 장풍운에게 정을 표한 장한성의 딸로 판명되지만, 완판36장본에서는 윤옥과 장한성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언급하겠다.

①의 내용은 장풍운이 회군하는 과정에서 찾은 어머니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즉 장풍운은 원철의 딸인 황화를 첩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는 장풍운이 복망을 침노한 진번을 토벌하기 위하여 출전하기 전에 가족과 이별하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 삼 부인은 이경패, 왕부용, 그리고 유경화이고 황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사실로 보면, 서술자도 황화를 첩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진인이 삼처 일첩을 둘 것이라고 한 말은 작품 전체의 구성면에서 모순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완판36장본에서 장진인이 삼처 일첩으로 발화한 것은 작품의 구성에서 장풍운이 삼처 이첩을 두는 것과 모순되며, 경판29장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품 구성의 통일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술자의 설명 내용이 변개된 예를 보기로 한다.

[자료 5]

경판29장본: 점 " 즈라미 응위훈 용모와 현양훈 괴상이 놀노 췌혀놓고, 칠 세의 시셔를 능통하고 궁마지지를 주화하거늘(1전~후)

완판36장본: 점 " 즈라 늑세에 이르미 얼골리 관육갓고 흥동거지 장지의 지너미 부모 스랑함미 비홀 더 업더라. 팔 세의 이르미 시셔를 통하며 궁마지지를 일삼으니(1후)

위의 자료는 어린 장풍운의 용모와 비범한 재주를 서술한 것이다.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서 장풍운의 외모와 행동을 묘사하는 어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두 이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내용은 밑줄 친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장풍운의 나이다. 장풍운이 시셔를 능통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는 나이가 경판29장본에서는 칠 세이고, 완판36장본에서는 팔 세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어느 나이가 정확할까?

장풍운은 가달의 침입으로 부모를 이별한 때의 나이를 이운경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경판29장본: 풍운이 울며 왈 "모친이 아롤 다리시고 저 산중의 갓습더니 혼 스름이 말롤 터와 가슴다가 이뇌 빗히 버리고 가오니 아모더로서 온 벉롤 모로오며 부친은 장시랑이라 호읍고 나흔 팔세오 닐홉은 풍운이로 소이다."<5전>

완판36장본: 풍운이 울며 왈, "모친이 소즈을 다리고 산중의 피란하다가



호 스푼이 다리고 그더니 노중의 바리미 갈 바을 물닌 스던 지명도 모로  
오며 나흔 팔세요 일흠은 풍운이로소이다.”<4전>

장풍운이 부모를 이별한 나이는 경판29장본이나 완판36장본 모두 팔 세이다. 위에서 장풍운이 시서를 능통한 나이와 부모를 이별한 나이를 관련지어 보면, 경판29장본에서는 1년의 차이가 있으며 완판36장본에서는 같은 해가 된다. 그런데 장풍운의 아버지가 시서를 능통하고 활쏘기와 말 타기를 익히는 장풍운을 보고 장진인에게 그의 참을 보인(경판29장본 1후, 완판36장본 1후), 1년 뒤에 가달이 침범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 모두 동일하게 서술된다.

경판29장본 : 명년 츄의 가달이 변방을 침노호미<2전>

완판36장본 : 명년 추 구월의 가다리 더국지경의 침노호미<2전>

이런 점으로 볼 때, 장풍운이 가달의 침략으로 부모와 헤어지게 된 나이가 팔 세라면, 그 1년 전의 나이는 칠 세가 정확한 것이다. 따라서 완판36장본은 장풍운의 나이에 대하여 서술자의 설명과 실제 구성 사이에는 모순이 있으며, 경판29장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품 구성의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건이 생략된 예를 볼 수 있다. 장풍운이 이운경을 따라갈 때 한 쪽 눈이 먼 광대로부터 노자를 받으며, 그 뒤에 황제의 사금으로 윤옥을 첩으로 삼는다. 이 두 사건은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 공통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완판36장본에서는 이 두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경판29장본에서 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의 개요를 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6]

- ①한쪽 눈이 먼 광대가 장풍운에게 노자를 준다.
- ②천자가 도적과 결연한 복관장 장한성을 역물로 잡게 하다.
- ③장한성이 망명하여 스스로 한쪽 눈을 찌르고 광대가 되고, 그 딸은 천자의 시녀가 되다.
- ④천자가 장풍운에게 시녀인 윤옥을 첩으로 사금하다.
- ⑤장한성이 장풍운의 친리준마를 훔치다가 잡히다.
- ⑥장풍운이 자기에게 돈을 준 광대가 장한성이며 윤옥이 그의 딸임을 알

다.

- ⑦천자가 장풍운의 이야기를 듣고 장한성의 죄를 면해준다.
- ⑧장한성이 딸 윤옥과 만나다

①은 장풍운이 함께 생활하던 광대들과 이별하는 장면이다. ②~④는 장풍운이 가달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 뒤에 서술되는 내용이며, ⑤와 ⑥은 장풍운이 진번의 항복을 받은 후 회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⑦과 ⑧은 장풍운이 이경패를 구출한 후에 전개되는 사건이다. 장한성이 장풍운에게 노자로 정을 표시한 사건은 생사를 알지 못하던 딸을 찾고 자신의 역물죄를 면하게 되는 인연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경판29장본에서는 위의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완판36장본에는 ②, ③, ⑤, ⑥, ⑦, ⑧이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생략함으로써 장한성이 장풍운에게 돈을 준 사건(개요 ①)과 천자가 장풍운에게 윤옥을 하사한 사건(개요 ④)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경판29장본은 사건들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전개되며, 완판36장본은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긴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짜임새가 합리성을 띠는 경판본과 짜임새가 엉성한 완판본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sup>12)</sup>.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경판29장본은 작품 전체의 사건을 인과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완판36장본은 전후 사건의 연결이 모순되거나 긴밀성이 부족하다. 작품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완판36장본은 작품 구성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2. 작품 의미의 변화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인물 묘사, 대화, 행위 등의 변화가 인물의 세계관 또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인물의 세계관 또는 삶의 방식은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12) 류탁일, 『한국문학연구』(아세아문화사, 1989), 127~128쪽.

「장풍운전」은 조선조 후기 신분의식의 동요와 관련한 가정 중심의 작품이며<sup>13)</sup>, 주인공의 일생의 의미를 가족 관계라는 대개항으로 설명한 작품이라고 한다<sup>14)</sup>. 그리고 주인공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불교적 존재의 도움이 개입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장풍운전」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인물의 세계관 또는 삶의 방식을 현실인식, 가문의식, 불교의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 이본 사이에 인물의 현실의식, 가문의식, 그리고 불교의식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현실의식

소설에서 인물 묘사는 인물 성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방법이다. 인물의 성격을 묘사한 내용의 변화에서 국가적 현실을 인식하는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 [자료 7]

경판29장본: 화설 디송시절의 금능 쓰러 일위 지상이 이스되 성은 장이오 일홈은 회니 소년등과하여 니부시랑의 니른지라. 위인이 출효적직하므로 소인의 무리로 더브러 삼합지 못하미 삼포스직하고 고향의 도라가 부인 양시로 더브러 농업을 힘쓰니<1전>

완판36장본: 더명 가정년간의 절강부 금능 싸의 혼 명환이 잇스되, 성은 장니요 명은 회라. 세디공후의 후예라. 문별이 일국의 으뜸이러니 소연 등과하여 벼사리 이부시랑의 잇더니 한입 조의 완소를 닦나 삭탈관직하야 니치시미 고향의 도라와 농업을 힘쓰니<1전>

위의 자료는 작품의 시작 부분이며, 장풍운의 아버지인 장효의 성격을 묘사한 내용이다<sup>15)</sup>.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서 장효가 관직을 그만 둔 것은 공통되지만 관직을 그만 두게 된 이유와 방법은 서로 다르다. 경판29장본에서는

13)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아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77쪽.

14) 이창원, 「장풍운전」, 완암김진세선생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집문당, 1990), 367쪽.

15) 장풍운의 아버지의 이름이 경판29장본에서는 장희이며, 완판36장본에서는 장효이다. 이처럼 두 이본 사이에 표기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완판36장본에 따라서 장효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장효가 소인들과 화합하지 못하여 스스로 관직을 그만 둔다. 완판36장본에서는 장효가 세대 공후의 후예로서 다른 인물의 참조로 관직을 사탈당한다<sup>16)</sup>. 인물 사이의 대립은 소신들과의 불합보다 참조가 더 심각하며, 대립의 결과는 사직보다 사탈이 더 처절하다. 이러한 인물의 대립 또는 그 대립의 결과는 국가적 정치 현실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관계된다고 하겠다<sup>17)</sup>. 따라서 완판36장본이 신하 사이에 대립하는 정치적 현실을 경판29장본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물의 행위 제현의 변화에서 현실에 대한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자료 8]

경판29장본 : 원슈 더군을 거느려 황성의 니르니 턴진 성외의 동가흐스 마즈시고 갈으스더 (20후)

완판36장본 : 황성으로 올라 오니, 상이 원슈 오물 드르시고 ㉠십이 바끄 나와 마즐시 만도 뵈판이 천즈을 시위호여 황천강변의 # 막을 비설호고 ㉡원슈 진쥬을 바라보시니 그치 창검은 일월을 그리오고 금고함섬은 천지를 혼듯논디 슈전고을 읊이논 소러 갓상이 진동호며 원슈 확금투고의 슈은표를 입고 철이 퇴산마을 타고 우슈의 봉미션을 잡아 일광을 그리오고 좌수의 흘귀을 잡아 제장군쥬을 총독호여 드러오는 위의 엄속호더라. ㉢원슈 어전의 드러갈 신 계장이 호위호며 양국 스신과 습십늑도군장이 좌우의 서시니 그 위의 찬란호지라. 드러그 복지 스비호디 삼이 짜의 나려 손을 잡고 그로스디,(24후)

위의 자료는 장풍운이 서번과 서달의 침노를 진압하고 황성으로 회군하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경판29장본에서는 장풍운이 회군하고 천자가 성외에 나가서 맞이하는 사실만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완판36장본에서는 승전 후 회군하는 장풍운을 맞이하는 천자의 행위, 장풍운의 모습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6) 이러한 사실은 이운경이 벼슬을 그만 두게 되는 원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경판29장본에서는 이운경이 나이 때문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며 <5전~후>, 완판36장본에서는 참조로 벼슬을 사탈 당한다 <4전>.

17) 「장풍운전」에서 국가적 현실의 위기는 가달의 침략, 서번과 서달의 모반과 침입, 진번의 모반과 침노 등으로 나타난다.

밑줄 친 ㉠에서 보는 것처럼, 천자가 만조 백관들과 함께 십리 밖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장풍운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의도는 서번과 서달의 반역과 침략을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의식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과 ㉢은 경판29장본에서는 서술되지 않은 내용이다. ㉡의 내용은 천자가 장풍운의 위의 엄숙한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은 천자와 장풍운이 서로 만나는 장면인데, 장풍운은 장수들과 양국 사신과 군장들의 호위를 받으며 어전에 들어가고, 천자는 땅에 내려서 장풍운의 손을 잡는다. 이처럼 천자와 장풍운의 모습 또는 행위가 서로 대비된다. 군사를 통솔하는 장풍운의 위의 있고 엄숙한 모습은 신하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천자가 땅에 내려서 원수의 손을 잡는 행위는 원수의 위상에 대하여 천자의 위치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물 사이의 대립과 그 결과, 천자와 장풍운의 상대적 위상 관계로 볼 때, 완판36장본은 경판29장본보다 정치적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한 의식을 반영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2) 가문의식

우리 나라는 가족·가정 지향적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귀가 얘기는 우리 나라 소설의 기본근간으로 이해하고 있다<sup>18)</sup>.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가족의 결속과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가문의식이다<sup>19)</sup>. 「장풍운전」에서 가문의식은 가문변영, 가문지속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문의식은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먼저 가문변영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18) 김열규, 「여성과 집에 관한 시론」, 김열규 외, 『문학적인·사회학적인 탐색 家와 家門』(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1쪽

19) 성현경님은 “가문변창과 영달, 가계지속과 변영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 사회가 가장 바라던 영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가문의식이 고소설에 투영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성현경, 「고전소설과 가문」, 김열규 외, 위의 책, 34~40쪽>.

[자료 9]

경판29장본 : 일 # 은 양씨 일몽을 어드되 하늘로서 선관이 흥포옥더로 너려  
와 니로더 “그더 무즈흐므로 슬허흐믈 옥예계서 어엿비 너기스 귀즈를  
점지흐시니 귀히 길너 문호를 빛너라” 흐거늘<1전>

완판36장본 : 일 # 은 부인 양씨 호련 곤하여 조의더니 하늘노셔 홀 선관이  
구름을 타고 나라와 부인게 스로더, “나도 천상 영주산 초지 선관으로  
상계계 득죄흐와 진토의 너치시미 당문의 연분이 잇기로 부인게 의탁흐  
오니 어엿비 네귀소서.” 흐고 문득 간 더 업거날<1전>

위의 자료는 장풍운의 어머니인 양씨가 장풍운을 낳게 되는 꿈을 서술한 내용이다. 그것은 태어날 아이와 장씨 가문에 대한 인연,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당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가문의식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다. 경판29장본에서는 선관이 태어날 아이를 귀히 길러서 문호를 빛나게 하라고 부탁한다. 이러한 내용은 가문번영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완판36장본에서는 선관으로서 득죄하여 적당하게 되는 아이를 어여뻐 여기라고 당부한다. 이러한 내용은 경판29장본에서 표출한 가문번영의 욕망과는 거리가 있다.

다음 가문지속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10]

경판29장본 : 시랑이 조셔를 밧잡고 부인으로 더브러 니별홀시 풍운을 어로  
만지며 왈 “내 이제 황명으로 나으가는니 부인은 으즈를 다리고 보중할  
쇼셔.” 흐고(2전)

완판36장본 : 시랑이 교셔을 보고 부인 손을 잡고 왈, “이제 도적이 급한  
디 황제 특명하시기로 거역지 못흐야 팔이 적친의 스소신을 단정치 못  
흐리니 부인은 아즈을 거두워 장씨 향화를 끈치말게 호소서.” 흐고(2전~  
후)

위의 자료는 장풍운의 아버지인 시랑이 황제의 명으로 가달에게 격서를 전하러 떠나기 전에 가족과 이별하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서 다른 내용은 시랑의 대화 내용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이다. 경판29장본에서는 시랑이 부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보중할 것을 당부한다. 완판36장본에서는 시랑이 자신의 불투명한 생사 문제와 관련하여 부인에게 아들을 거두어 가문의 향화를 끊지 말게 하라고 부탁한다. 이러한 차이에서 경판29장본

은 가족의 안정을 걱정하는 가문의식을 보이며, 완판36장본은 가문의 지속을 염원하는 가문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판29장본에서는 가문번영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완판36장본에서는 가문지속의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3) 불교의식

「장풍운전」에서 장풍운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이별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장풍운의 어머니는 남편과 이별하고 아들을 적에게 빼앗겨 이별한 시련을 겪고 있다. 장풍운과 그의 어머니는 헤어져 있는 가족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들의 의지가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먼저, 장풍운의 어머니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남편과 아들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자료 11]

경판29장본 : 너일 청경이 부인과 옥미를 청하여 목욕지게하고 머리를 싸가 비불하고 승명을 계원이라 하여 청경의 상지되고 옥미의 승명은 보경이라 하여 계원의 상지되여 노췌스체되니 그 거동이 창연호더라.(4전)

완판36장본 : 잇튼날 노승이 부인과 옥미를 띄욕지게하여 머리를 식그니 부인이 더욱 슬허 # 논지라. 승명은 계원이니 노승의 상즈되여 세월을 보너더라. 부인이 밋일 불전의 축원호되 시랑과 풍운을 다시 보게 호소서 호더라. (3후)

위의 자료는 장풍운의 어머니가 승려로 변신하는 장면을 서술한 내용이다.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서 장풍운의 어머니가 승려가 된 사실은 동일하지만 완판36장본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부연되어 있다. 즉 완판36장본에서는 장풍운의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불전에 매일 축원하는 삶이 부연되어 있으나 경판29장본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sup>20)</sup>.

20) 장풍운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난 것에 대하여 완판36장본에서 부처님의 지시라고 판단하여 이야기하지만<19후> 경판29장본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자료 12]

경판29장본: 노승 왈 “빈승은 금산스 화궤여니와 그디 정성이 지극하면 츠즈리라” 하고 간더 업는지라. 원슈 마음의 의은하여 공중을 향하여 스투레하고(15전)

완판36장본: 노승 왈, “금산스 화궤로소이다.” 하고 간더 업거날, 꿈을 찌여 생각하니, ‘노승이 은혜을 굽노라 하고 지시호도다.’ 하고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생각호되, ‘정쇄헌 산당의 나아7 불전의 정성으로 비리라’ 하고(16후)

위의 자료는 노승이 장풍운에게 어머니와 아내를 찾을 것을 현몽으로 지시하고 그 지시에 대한 장풍운의 태도를 서술한 것이다. 「장풍운전」에서 장풍운이 노승의 현몽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찾아서 만나는 것은 모든 이본에 공통된다. 그러나 현몽한 노승의 말과 그에 대한 장풍운의 태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판29장본에서는 지극한 정성을 말하는 노승에 대해 장풍운이 사례하는 행동을 서술하고, 완판36장본에서는 노승의 현몽을 자신의 시주에 대한 보은이라고 해석하면서<sup>21)</sup> 불전에 정성으로 빌겠다고 생각하는 내면적 심리를 묘사한 점이 다르다. 어머니와 아내를 찾으려는 장풍운의 의지가 경판29장본보다 완판36장본에 더 간절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완판36장본에서는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전에 비는 장풍운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삶의 방식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장풍운과 그의 어머니가 가족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불교적 세계관 또는 삶의 방식으로 볼 때, 완판36장본은 경판29장본보다 불교의식을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서 현실의식, 가문의식, 불교의식의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는 완판36장본이 경판29장본보다 신하의 정치적 대립이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왕편에 대한 신권의 위상이 강화되어 있다.

둘째, 가문의식에서는 경판29장본은 가문번영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완판36장본에서는 가문지속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다.

21) 장풍운이 금산스 화궤의 권선문을 받고 이경패로부터 받은 돈을 봉한 채로 모두 준다(7전~후).



셋째, 불교의식서는 완판36장본이 경판29장본보다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교적 가치관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다.

### Ⅲ. 서울지역과 호남지역의 독자 성향

「장풍운전」에서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의 변화는 독자의 작품 감상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경판소설과 완판소설의 주요 독서 계층의 신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판 방각본이 주로 草莽로 쓰이어 보급되고 있었다는 점은 초서로 쓰인 것을 독자들이 능히 해독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의 독자는 여성층이었지만 완판의 독자는 주로 남성들이었다. 이 남성 독자들은 초기에는 대개 중인 서리층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그 서리 중인 독서층이 농민층으로 이동되었다.<sup>22)</sup>

위의 견해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판소설의 독자는 주로 여성이며<sup>23)</sup>, 호남지역의 완판소설의 독자는 주로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방각소설 간행자는 소설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먼저 많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다음으로는 독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미학적 또는 도덕적으로 조직된 독자 집단의 취미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꾸밀 것이다.<sup>24)</sup> 경판소설 간행자는 서울지역 독자의 독서 성향에 맞도록 작품의 내용을 변화시켰을 것이고, 완판소설 간행자는 호남지역 독자의 성향에 맞도록 작품의 내용을 변화시켰을 것이다. 한편 경판소설의 독자들은 전후관계를 통하여 통일된 구조미를 감상하고, 완판소설 독자들은 즉흥적이고 현시성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정도의 독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

22)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학문사, 1981), 77쪽.

23) 조혜란님은 경판소설 가운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경판소설의 독자가 여성이 주류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경판 방각본 소설의 특성」,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아세아문화사, 1994), 320쪽>.

24) 에스카르피 저, 민희식·민병덕 역, 『문학의 사회학』(을유문화사, 1983), 105쪽.

정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시각으로 「장풍운전」에 대한 서울지역 독자와 호남지역 독자의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작품 구성에 대한 미학적 성향과 작품 의미에 대한 이념적 성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성에 대한 심미적 성향

경관29장본과 완판36장본 사이의 변화된 내용 가운데 사건 서술 속도와 작품 구성의 통일성이 미적 자질에 해당한다. 작품 구성에 대한 독자의 심미적 성향을 사건 서술 속도 또는 작품 구성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건 서술 속도에 대한 독자의 심미적 성향을 설명할 수 있다. 완판36장본에서는 작품 전개 과정에서 인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경관29장본에서는 대화한 사실만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료 1]과 [자료 2]가 그 예이다. 그리고 완판36장본에서는 전쟁에 나아가는 인물의 모습과 행위, 그리고 서술자의 논평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경관29장본에서는 인물의 출전 사실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자료 3]이 그 예이다. 이러한 차이를 장면 중심의 극적 제시와 사건 중심의 요약적 제시로 이해하여, 장면 중심의 극적 제시는 작품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속도를 지연시키고, 사건 중심의 요약적 제시는 사건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완판36본의 독자는 작품에서 제시한 장면을 여유 있게 감상하게 되며, 경관29장본의 독자는 작품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신속하게 감상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작품 구성의 통일성에 대한 독자의 심미적 성향을 설명할 수 있다. 장풍운의 나이 또는 처첩의 수가 경관29장본에서는 일관되게 서술되어 통일성이 있으나 완판36장본에서는 그 나이 또는 처첩의 수가 다르게 설명되어 작품 전체 구성에서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그 예가 [자료 4]와 [자료 5]이다. 그리고 작품에서 구성된 사건이 경관29장본에서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완판36장본에서는 관련된 사건 가운데 일부를 생략함

25) 류탁일, 『한국문학연구』(아세아문화사, 1989), 127~128쪽.

으로써 구성의 일관성 또는 인과관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료 6]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실로써 경판29장본은 사건을 인과적으로 구성하고 합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본이며, 완판36장본은 전후 사건의 일관성보다 장면에 충실하여 구성된 이본이라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경판29장본의 독자는 작품 전체의 통일된 구성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감상하게 되며, 완판36장본의 독자는 작품의 전체 구성보다는 서술된 사건을 장면 중심으로 감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위에서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서 살펴 본 서술의 차이는 방각소설 간행자가 서울지역 독자와 호남 지역 독자의 작품 감상 성향을 의식한 결과일 것으로 추측한다. 이에 기초하여 작품 구성에 대한 서울지역 독자와 호남지역 독자의 심미적 성향을 유추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독자는 작품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전체의 통일된 구성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감상하는 성향을 지녔을 것이다. 그리고 호남지역 독자는 작품에서 제시한 장면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며, 전체 구성의 통일성보다는 서술한 내용에 충실하여 감상하는 성향을 지녔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서울지역의 여성 독자가 호남지역의 서민 남성 독자보다 소설을 감상하는 지적 수준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의미에 대한 이념적 성향

앞에서 살펴본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 사이의 변화된 내용 가운데 현실 의식, 가문의식, 불교의식이 작품의 의미에 대한 이념적 요소에 해당한다. 작품의 의미에 대한 독자의 이념적 성향을 현실의식, 가문의식, 불교의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인물의 성격을 묘사한 내용 또는 인물의 행위의 변화에서 정치적 현실에 대한 독자의 이념적 성향을 살펴볼 수 있다. 신하 사이의 대립이 감소와 파적으로 서술된 완판36장본이 불합과 사직으로 서술된 경판29장본보다 더 심각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자료 7]이 그 예이다.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관계에서 천자가 땅에 내려서 장풍운을 맞이하는 완판36장본은 이 내용을 생략한 경판29장본과 비교하여 신권의 상대적 부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료 8]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실로써 완판36장본이 경판29장본보다 신하의 정치적 대립이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왕권에 대한 신권의 위상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완판36장본의 독자는 경판29장본의 독자와 비교하여 신하 사이의 심각한 정치적 대립 현실과 처절한 패배를 인식하게 되며 아울러 왕권에 대한 신권의 부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인물의 발화 내용의 변화에서 가문의식에 대한 독자의 이념적 성향을 설명할 수 있다. 장풍운 출생 태몽에서 경판29장본은 가문변영 의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완판36장본에서는 그 내용이 변개되어 있다. [자료 9]가 그 예이다. 장풍운의 아버지가 가족과 이별할 때에 완판36장본에서는 가계의 단절을 걱정하지만 경판29장본에서는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자료 10]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실로써 가문의식에서 경판29장본은 가문변영을 표현하고 있으며, 완판36장본에서는 가문계승의 문제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경판29장본의 독자는 가문변영이라는 의미를 감상하게 되며, 완판36장본의 독자는 가문지속의 의미를 감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인물의 성격 또는 발화 내용의 변화에서 불교적 의식에 대한 독자의 이념적 성향을 설명할 수 있다. 완판36장본에는 가족 이별의 문제를 불교적 이념의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 극복을 부처의 지시로 믿는 신념이 경판29장본과 비교하여 분명하게 나타난다. [자료 11]과 [자료 12]가 그 예이다. 이러한 사실로써 완판36장본이 경판29장본보다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교적 가치관을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완판36장본의 독자는 경판29장본의 독자와 비교하여 불교적 믿음과 이로 인한 소원 성취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에서 살펴본 내용의 차이는 방각소설 간행자가 서울지역 독자와 호남지역 독자가 작품을 감상하는 이념적 성향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작품에 대한 서울지역 독자와 호남지역 독자의 이념적 성향을 유추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독자는 첫째, 작품에 설정된 정치적 현실 또는 권력 구조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었고, 둘째, 가족의 안전을 포함한 가문 변영을 회구하였

으며, 셋째, 불교적 믿음과 이로 인한 소원 성취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경판소설 독자의 성향은 서울이라는 도시적 성격 또는 여성의 삶의 특성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지역의 독자는 첫째, 작품에 설정된 정치적 현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왕권에 대한 신권의 강화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기대하였으며, 둘째 불안정한 현실에서 가문지속이라는 의식을 가졌고, 셋째 불교적 믿음과 이로 인한 소원 성취의 가능성을 인식한 것 같다. 이러한 완판소설 독자의 성향은 호남이라는 농촌적 성격 또는 서민 남성의 삶의 특성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IV. 결 론

우리 나라에서 방각소설 간행의 중심지는 서울지역과 호남지역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풍운전」 가운데 경판29장본과 완판36장본을 대상으로 작품의 구성과 의미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두 지역 독자의 심미적 성향과 이념적 성향을 비교 설명하였다.

서울지역의 경판 「장풍운전」의 독자는 작품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 구성의 통일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심미적으로 감상하는 성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념적으로는 작품에 설정된 정치적 현실 또는 권력 구조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었고, 가족의 안전을 포함한 가문 번영을 회구하였으며, 불교적 믿음에 의한 소원 성취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

호남지역의 완판 「장풍운전」 독자는 작품 구성의 통일성 또는 사건의 인과관계보다 서술된 사건을 장면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감상하는 심미적 성향을 지녔을 것이다. 이념적으로는 작품에 설정된 정치적 현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왕권에 대한 신권의 강화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기대하였고, 불안정한 현실에서 가문 지속이라는 의식을 가졌으며, 불교적 믿음으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내용은 「장풍운전」 가운데 경판 29장본과 완판36장본을 선

택하여 내적 변화를 중심으로 추정할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가 통시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장풍운전」 이본의 계보를 설정한 후 경관으로 간행한 이본의 변화 또는 완판으로 간행한 이본의 변화에 기초하여 독자 성향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추정한 독자의 성향이 실제 독자의 성향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장풍운전」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으로 검증할 수 있다. 독자의 반응은 필사본의 후기 또는 「장풍운전」을 평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울지역 독자와 호남지역 독자의 성향이 다르게 형성된 요인이 무엇 일까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인 서울과 농촌인 호남의 지역적 특성 또는 독자의 현실적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풍운전」을 대상으로 살펴본 독자의 성향이 다른 작품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추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른 작품을 대상으로 독자 성향을 연구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판과 완판으로 간행된 동일 작품은 서울지역과 호남지역 독자의 성향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네 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바로 고소설의 독자론을 이론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래서 독자의 성향을 밝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작품으로 독자의 성향을 체계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 A Study on the Reader-Reception of Variation in Xerographic Story Jang-pung-un-jeon

Kim Byeong-Kweo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reception of the readers in Seoul and Cheolla(全羅) Province. In this study, the 29 sheets edition of Jang-pung-un-jeon(張風雲傳), which was published in Seoul area, and the 36 sheets edition which was published in Jeonju(全州) area, were selected as texts.

It is inferred that the readers in Seoul Province had an aesthetic inclination to read the work focusing on the coherent structure and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of the events. Ideologically they were not interested in the political reality or power structure which were set up in the work. Rather, they were inclined to seek for family's prosperity such as their safety. In addition, they did not have an interest in Buddhist beliefs and the fulfillment of their wishes through Buddhism.

On the other hand, the aesthetic inclination of the readers in Cheolla Province can be concluded that they read the story with an easy and graceful attitude focusing on the scenes and the description of the events. Their ideological inclination was that they recognized the political reality in the work with acute sense and wanted the stability of the society by strengthening liege right over royal power. They also wished their own family to continue in unstable circumstances and believed Buddhism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wishes through Buddhism.